

## 대학생의 안보건교육 요구도

이옥진 · 김혜금\*

동남보건대학 안경광학과, \*동남보건대학 보육과  
(2007년 5월 15일 받음, 2007년 6월 15일 수정본 받음)

본 연구에서, 대학생 304명을 대상으로 안보건교육 요구도에 관한 조사를 하여 안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설문을 통해 성별, 전공계열별, 안보건교육 피경험 여부에 따른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SAS와 X<sup>2</sup>-검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대다수의 대학생(95.72%)은 정규 교육기관에서 안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안보건교육 요구도는 86.51%로 높았으며 안보건교육 피경험여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계열별 요구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자연계열의 요구도와 의료보건계열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대학생, 안보건교육 요구도

### 서 론

최근 시각을 통한 정보습득의 증가와 눈의 지나친 혹사로 인해 시력의 약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 초, 중, 고등학생의 시력장애 및 안보건 상태에 대한 조사<sup>[1]</sup>에서 시력저하 학생의 비율이 38.8%에 이른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2005년 초·중·고 학생신체검사 결과<sup>[2]</sup>에 따르면 46.56%의 학생들이 시력에 문제(단안시력 0.6이하)가 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1.8배가 증가한 것이며 고학년 일수록 시력약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령기의 학생들에게 시력관리를 포함한 안보건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나 실제로 정규교육기관에서의 안보건 교육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안보건교육의 부재 또는 부족과 잘못된 상식, 지식의 전파는 오히려 일반 대중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sup>[3]</sup>.

현재 국내 학교의 보건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밀려 그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보건교육의 내용도 전염병 예방교육, 신체검사, 성교육 등 당면한 보건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교 보건교육의 개념 및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sup>[4]</sup>. 이러한 보건교육의 양적 질적 부족에 따라 보건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와<sup>[4,5]</sup> 중학교의 보건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등이<sup>[6]</sup> 이루어졌으나 일부 대상에 국한되고 보건

교육 내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정규교육기관을 마친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보건교육에 대한 피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안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 분석하여 보건교육 내 안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안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6년 6월 현재 경기도 소재 2-3년제 보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314명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답변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04부를 SAS 8.1(SAS Institute, Cary, NC)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성별, 전공계열별, 안보건교육 피경험 여부에 따른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X<sup>2</sup>-검정을 이용하여 각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안보건 분야에서 선행된 연구가 없는 관계로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에는 일반적인 인적사항, 고교까지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안

\*본 논문은 동남보건대학 2006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주 저자 연락처: 이옥진, 440-71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37 동남보건대학 안경광학과  
TEL: 031-249-6512 FAX: 031-249-6510 E-mail: leeo@dongnam.ac.kr

보건교육의 피경험 여부와 만족도, 안보건교육의 요구도, 안보건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 내용, 교육자 등에 관한 총 13문항으로 작성되었다(Appendix 1).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학생이 56.58%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2-3년제 대학생이 65.46%로 4년제 대학생보다 많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의료보건계열이 47.7%, 인문계열이 17.11%, 사회실무계열 14.8% 순으로 많았다.

**2. 안보건교육 피경험 실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안보건교육 피경험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95.72%(291명)가 안보건교육 피경험이 없었고 4.28%(13명)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하여 대다수의 대학생이 안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경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제한점이 있으나, 피경험자는 남자가 53.85%(7명), 여자가 46.15%(6명)로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피경험자가 교육을 받았던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0.77%(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23.08%, 유치원 15.38%의 순이었다. 피경험자가 안보건교육을 받은 대상으로는 담임교사가 46.15%(6명), 기술 가정교사 23.08%(3명), 보건(양호)교사 15.38%(2명), 과학교사와 외부전문가초빙이 각각 7.69%(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교육받은 내용으로는 독서자세와 거리, TV시청거리, 조명, 권장음식 등의 ‘일반적인 눈의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이 53.85%(7명), ‘눈의 질환과

예방에 관한 정보’가 30.77%(4명), ‘시력관리’에 대한 내용이 15.38%(2명)이었고 ‘눈의 구조와 기능’,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사용 및 관리법’ 등의 내용은 교육을 받은 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경험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이 69.23%(9명), ‘불만족’이 23.08%(3명), ‘매우 불만족’이 7.69%(1명)이었고 ‘매우만족’은 해당자가 없었으나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sup>[6]</sup> 보건교육의 피경험이 86.5%이며 83.7%가 보건교육전문가 또는 양호교사로부터 받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보건교육의 세부분야인 안보건교육에 대한 경험을 물었고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는<sup>[6]</sup> ‘성교육’이 추가 된 일반적인 보건교육에 대한 경험을 물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3. 안보건교육 요구도**

대학생들의 안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보건교육을 요구하는 대학생이 86.51%(263명), 요구하지 않는 대학생이 13.49%(41명)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안보건교육 피경험자의 요구도(100%)와 무경험자간의 요구도(85.91%)도 모두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요구도는 남자가 87.12%(132명 중 115명), 여자가 86.05%(172명 중 148명)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안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타 연구의 일반적인 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비교해보면, 중학생이 원하는 보건교육 요구도가 62.7%, 교사가 원하는 요구도가 95.9%로 조사되었고<sup>[6]</sup> 중년여성의 보건교육 요구도는 76.6%로 조사되어<sup>[7]</sup> 중학생, 중년여성의 보건교육 요구도 보다는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고 중학교 교사의 보건교육 요구도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안보건교육과 일반 보건교육은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중학교 교사의 경우는 가정과, 과학과, 체육과, 양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4)

character	division	frequency (%)
sex	male	132(43.42%)
	female	172(56.58%)
educational system	college	199(65.46%)
	university	105(34.54%)
division of major	human knowledge	52(17.11%)
	natural science	28(9.21%)
	medical and health science	145(47.7%)
	social science	45(14.8%)
	art and athletics	12(3.95%)
	engineering	19(6.25%)
	the others	3(0.99%)

Table 2. Degree of request for eye-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eye-health education	request	no request	total
had a experience	13 (100%)	0	13 (100%)
had not a experience	250 (85.91%)	41 (14.09%)	291 (100%)
total	263 (86.51%)	41 (13.49%)	304 (100%)

호교사 등 실제 보건교육을 행하거나 교과목 상에 보건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요구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보건교육을 받는 대상자 측면에서 요구도를 비교한다면 중학생이나 중년여성들의 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보다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전공계열별 안보건교육 요구도**

대학생들의 전공계열별 안보건교육 요구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p < .001$ ). 자연계열의 요구도가 96.43%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 보건계열, 예 체능계열, 인문계열, 공학계열, 사회실무계열 순으로 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대학생의 건강신념도와 실천도에 관한 연구에서 전공계열별 차이를 보면 간호의학계열이 122.04점, 일반계열이 112.72점으로 간호의학계열의 건강신념도가 더 높았고, 일반계열 중에는 예체능계가 11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계열별 건강행위실천도의 차이에서도 일반계열보다 간호의학계열의 건강행위실천도가 높았고 건강신념이 높을수록 건강행위실천도가 높은 유의성을 보여주었다<sup>[8]</sup>.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공계열별 요구도 차이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의료보건계열과 자연계열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으며 교육과정상 건강관련과목에 대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신념도나 실천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sup>[8]</sup> 같이 이들 전공 대

Table 3. Degree of request for eye-health education about division of major

division of major	request of eye-health education		total
	request	no request	
human knowledge	43 (82.69%)	9 (17.31%)	52 (100%)
natural science	27 (96.43%)	1 (3.57%)	28 (100%)
medical and health science	133 (91.72%)	12 (8.28%)	145 (100%)
social science	32 (71.11%)	13 (28.89%)	45 (100%)
art and athletics	10 (83.33%)	2 (16.67%)	12 (100%)
engineering	15 (78.95%)	4 (21.05%)	19 (100%)
the other	3 (100%)	0 (0%)	3 (100%)
total	263 (86.51%)	41 (13.49%)	304 (100%)

\* $p < .001$

학생들의 건강관심도, 전공과 건강관련 정도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5. 안보건교육 요구내용**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안보건교육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총 304명의 대상 중 안보건교육을 요구하는 263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안보건교육에 적합한 정규교육기관과 교육자, 교육내용에 관한 빈도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안보건교육에 적합한 기관으로는 초등학교가, 교육자로는 외부초빙 전문가가, 교육의 내용으로는 ‘눈의 일반적인 건강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나 많은 수의 대학생들은 초등학교를 교육의 최적기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문가에 의한 안보건교육이 실시되기를 원하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눈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안보건교육에 대한 피교육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안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학교의 보건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보건교육 내에서도 안보건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이 전혀

Table 4. Request matter for eye-health education

matter for eye-health education	division	frequency (%)
educational institution	preschool	45(17.11%)
	primary school	126(47.91%)
	middle school	62(23.57%)
	high school	30(11.41%)
	total	263(100%)
teacher	homeroom teacher	45(17.11%)
	science teacher	14(5.32%)
	health teacher (nurse-teacher)	45(17.11%)
	technology and home management teacher	4(1.52%)
	athletic teacher	1(0.38%)
	expert for eye health education	152(57.79%)
	total	263(100%)
	contents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eye
general care of the eye		151(57.41%)
vision care		60(22.81%)
eye trouble and prevent		31(11.79%)
care of glasses and contact lens		10(3.8%)
the others		3(1.14%)
total		263(100%)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학령기의 보건교육은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 나아가 국가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기초교육이라 하겠으며 안보건교육은 국민들이 편안한 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초작업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규교육기관의 보건교육 내에 안보건교육의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제반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 304명을 대상으로 안보건교육 요구도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안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대다수의 대학생(95.72%)은 정규 교육기관에서 안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안보건교육 요구도는 86.51%로 높았으며 안보건교육 피경험여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계열별 요구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자연계열의 요구도와 의료보건계열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 참고문헌

- [1] 김재찬, 변도석, 김태진, 문남주, 양한남, 구본술, “서울 초·중고등학생의 시력장애 및 안보건 상태에 대한 조사”, 대한안과학회지, 28(3):1-6(1987).
- [2]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학생신체검사결과통계”, <http://www.moe.go.kr/main.jsp?idx=050610101>(2006).
- [3] 이진학, 이재선, “일반인의 안과상식에 대한 조사-제1보: 중·고·대학생의 근시 및 색각이상에 대한 상식”, 대한안과학회지, 28(2):1-7(1987).
- [4] 박은숙, 박영주, 유효신, 한금선, 황라일, 임여진, 임혜상, 문소현, “전국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육 실태 조사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6(2):381-388(2006).
- [5] 김희순, 이정렬, 이태화, 함옥경, “어린이집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현황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3(1):109-123(2006).
- [6] 윤영옥, 김초강, “서울 시내 일부 중학교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5(2):5-23(1999).
- [7] 전해경, 문인옥, “중년여성의 보건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6(1):45-59(1999).
- [8] 이병숙, 김미영, 김미현, 김선경,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건강신념 및 건강행위 실천도”, 대한간호학회지, 30(1):213-224(2000).

## Undergraduate Students' Degree of Request for the Eye-Health Education

Ok-Jin Lee and Hye-Gum Kim\*

Department of Optometry and Vision Science, Dongnam Health College

\*Departmen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College

(Received May 15, 2007; Revised manuscript received June 15, 2007)

In this paper,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some fundamental data on the development of the eye-health education program and conducting a practical application, the degree of request for the eye-health education were investigated by surveying 304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request for the eye-health education and sex, the division of major, and the experience of eye-health education was examined by SAS and X<sup>2</sup>-test of questionnaire. The degree of request of undergraduate students for the eye-health education was as high as 86.51%.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ence on their experience of the eye-health education or their sex.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ence on their major. Specially, the degree of request of natural science, medical and health science majors was higher than any other majors. Consideration on the eye-health education should be required to meet the request of it.

**Key words:** an undergraduate student, degree of request for the eye-health education

**Appendix 1.**

**The questionnaire for the investig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degree of request for the eye-health education**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대학생들이 눈 건강과 시력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았던 경험과 안보건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다음의 질문에 정성껏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사항은 절대 비밀로 보장되며, 통계분석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눈 건강과 시력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았던 경험과 안보건교육 요구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눈 건강과 시력관리에 관한 교육을 교육기관 (유치원, 학교)에서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1) 예 → 문항 1-A로 2) 아니오 → 문항 2로

(문항 1에서 '예'로 대답한 경우에 한하여)

1-A. 교육기관에서 눈 건강과 시력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면 어느 기관입니까?

-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1-B. 눈 건강과 시력관리에 관한 교육을 누구에 게 받았습니까?

- 1) 담임선생님 2) 과학선생님 3) 양호선생님 4) 기술·가정선생님 5) 체육선생님 6)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가 7) 기타( )

1-C. 교육기관에서 받은 눈 건강과 시력관리에 관한 교육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1) 눈의 구조와 기능 2) 눈의 일반적 건강관리(독서자세, 독서거리, TV시청거리, 조명상태, 권장음식 등)
- 3) 시력관리(정기적 시력검사의 권장,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이상) 4) 눈의 질환과 예방에 관한 교육
- 5)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사용 및 관리법 6) 기타 ( )

1-D. 교육기관에서 받은 눈 건강과 시력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 1) 매우 만족 2) 만족 3)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은 2번으로 계속됩니다.)

2. 눈 건강과 시력관리에 관한 교육기관(학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1) 예 →문항 2-A로 2) 아니오→문항 3으로

(문항 2에서 '예'로 대답한 경우에 한하여)

2-A. 교육기관(학교)에서 눈 건강과 시력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2-B. 교육기관(학교)에서 눈 건강과 시력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1) 눈의 구조와 기능 2) 눈의 일반적 건강관리(독서자세, 독서거리, TV시청거리, 조명상태, 권장음식 등)
- 3) 시력관리(정기적 시력검사의 권장,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이상) 4) 눈의 질환과 예방에 관한 교육
- 5)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사용 및 관리법 6) 기타 (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은 3번으로 계속됩니다.)

2-C. 교육기관에서 눈 건강과 시력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1) 담임선생님 2) 과학선생님 3) 양호선생님 4) 기술·가정선생님 5) 체육선생님 6)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가 7) 기타(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은 3번으로 계속됩니다.)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의 성별은?

- 1) 남자 2) 여자

4. 귀하의 출신지역은?

- 1) 도시 2) 농 어촌 지역

5. 귀하가 소속된 학교는?

- 1) 4년제 대학교 2) 2년~3년제 전문대학

6. 귀하가 소속된 학과 계열은?

- 1) 인문계열 2) 자연계열 3) 의료보건계열 4) 사회실무계열 5) 예체능계열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